

마지막 추수를 위한 히려짐

세계적 흐름인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용

개정판



Global Diaspora Network

마지막 추수를 위한 흙어짐

세계적 흐름인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용
개정판

This Korean revised edition made available for:

Global Diaspora Virtual Summit Only.

August 26-27, 2020

Please do not forward copies.

All Rights Reserved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 of Diaspora

Revised Edition

마지막추수를위한흩어짐

세계적 흐름인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용

개정판

Copyright © 2017 by Lausanne Movement and Global Diaspora Network.

First e-Book Edition 2020

e-book layout: Sam George

Published by **Parivar International**

PO Box 5301, Vernon Hills, IL 60061

First print edition 2010

Second revised print edition 2017

Published by Lausanne Movement and Global Diaspora Network

Global Diaspora Network is an issue network of the Lausanne Movement

info@global-diaspora.com

www.global-diaspora.com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including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without permission from Global Diaspora Network.

Cover Design and Print Book Layout by Dennis Dimangondayao

번역 위디국제선교회 감수 문창선

목차

마지막추수를위한홀어짐	2
목차	4
추천의글	5
서문	6
케이프타운에서 마닐라를 거쳐 온세상으로: 로잔 운동과 이주민들	7
‘디아스포라’와하나님의선교	10
디아스포라 선교의사실상	26
디아스포라들에게다가가기위해	28
함께 기여한 저자들의 소개	34
Diaspora 	36

추천의 글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 초에 우리는 "이동 중인 사람들"이 전례 없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이주를 신중하게 계획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 재해나 이원적인 재난 때문에, 그들의 출신지에서 이주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연결된 세계에서, 이주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을 것이다. 모든 연구자들은 이러한 초국가적 이민의 세계적 추세가 멈추지도 느려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 경제의 성장, 기능 상실 국가의 증가, 통신과 운송 시스템의 급속한 성장으로 거의 국경 없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운데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을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학계 전문가와 목회 실무자들이 벌이는 담론을 통해 성경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분야가 등장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Diaspora Missiology)은 "출생지 떠나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명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선교적 틀"로 정의된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주하는 사람(People on the Move)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 나아가 그들을 넘어 다각적인 사역을 다룬다.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 선언은 IIC/5절에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필요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로잔 운동은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출범을 허가하고 디아스포라 선교의 기초를 구축하게 하였다.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관련하여 세계 55명의 전문 저자들을 기고하게 하여 600쪽 분량의 '흩어지고 모여지고: 디아스포라 선교학 글로벌 컴펜디엄'(2016)을 5대륙 전 대륙에 발간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나는 글로벌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와 도전의 순간에 서 있다고 믿는다. 이 소책자, "세계적 흐름인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용"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일깨우고 경각심을 주어 흩어진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기 위한 도구다.

T.V. Thomas 목사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의장(2016-)

서문

이 책자는 디지털 전자책의 "흩어지며 모여지는 사람들: 세계적 흐름인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응"의 개정판입니다. 원본 책자는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 참가자들에게 제시됐다. 이후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2017년 개정·출판한 뒤 2020년 e북으로 전환했다.

이 책자는 로잔 디아스포라 리더십 팀(LDLT)이 처음 출판한 책자로 사디리 '조이' 티라 박사, 엘리아스 메데리오스 박사, 그렉 백운영 박사, 베르길 슈미트 박사, TV 토마스 박사, 에녹 완 박사, 그리고 닥터 야마모리 테쓰나오가 참여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태국의 파타야에서 열린 2004 로잔 포럼 중, 디아스포라와 국제 학생 사역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New People Next door(Lausanne 제55호)를 방점을 찍는 것이었다.

"Scattered to Gather"는 로잔 디아스포라 리더십 팀의 의지가 담겨 이 새로운 선교적 개념을 실제 연구에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명확히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자는 예고편의 역할을 하며 교회, 교단, 선교기관, 신학기관 사이에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실향민 등의 맥락에서 새로운 선교적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2020년 8월 온라인 디아스포라 서밋을 위해 이 책자를 ebook 형식으로, 그리고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글로벌 이주민 데이터, 정보 및 기타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업데이트는 GDN 웹 사이트(www.global-diaspora.com)와 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샘 조지 박사

디아스포라 카탈리스트, 로잔 운동 (2016-)

휘튼 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센터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장

케이프타운에서 마닐라를 거쳐 온세상으로: 로잔 운동과 이주민들

현시대의 선교적 기회

이주는 21세기에 유례없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가속화된 세계적인 현실이다. 국제이주기구(IOM)가 2015년을 '이주민의 해'로 정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총 이주민 주식 동향: 유엔 경제사회부 인구분과의 2015 개정안은 "국제이민자, 즉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2015년 전 세계적으로 2억4400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41% 증가했다"고 보고했다.¹ 수천 명의 노동 이민자들, 난민들, 망명 신청자들, 국제 학생들과 부푼 꿈을 가지고 미래를 찾는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그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이주는 모든 지역,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이주는 세계적으로 인구분포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케이프타운에서 강조된 디아스포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 3세 대회중 멀티플렉스 및 본회의에서 강조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해안가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주민'을 다루는 것이었다. 글로벌 교회를 일깨우고 참석자들을 초청해, 진지하고 전략적으로 글로벌 디아스포라 선교에 임하는 것이 목표였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로잔 3차 대회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케이프타운 서원: 믿음의 고백과 행동 촉구'에 통합되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참여하라는 최초의 요구는 주로 부처 실무자들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및 선교 연구에 학계와 실무자들의 협업이 필요했다. 게다가, 디아스포라와 임무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연구와 자료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로잔 운동 지도부는 디아스포라스 선임연구에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마닐라로 가는 길

로잔 3차대회를 정점으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넓히고 디아스포라 어젠다를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DN)가 조직되었다. GDN은 공식적으로 로잔 3차대회의 준비에 전념했던 구 로잔 디아스포라스 리더십팀(LDLT)을 교체했다. LDLT는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발표할 복음주의 디아스포라 신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9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로잔 디아스포라 전략협의회와 200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로잔 디아스포라 교육자협의회가 '서울 디아스포라 선교학 선언문'이 채택된 두 가지 협의가 진행됐다. LDLT의 가장 큰 기여는 로잔 3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는 오리지널 "모여지기위하여 흩어진 사람들"의 제작과 배급이었다.

존경받는 디아스포라 학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GDN 국제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로잔운동의 산하에 GDN은 '이주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GDN 본부와 사무국은 마닐라에 설립되어 필리핀 관계부처 산하에 정식 등록되어 GDN에 법적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2011년 6월 GDN 지도부는 2015년 마닐라에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GDN은 2015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GDF(Global Diaspora Forum)를 소집하였으며, 메트로 마닐라 오르티가스 센터에서 Greenhills Christian Fellowship 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디아스포라 실천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모인 목적은 2010년 케이프타운 이후 5년 만에 디아스포라 실학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50명 이상의 학계 전문가, 현장 근로자, 관련 지도자, 정부 및 NGO 대표들이 모든 5개 대륙에서 40개 이상의 기독교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GDF 참가자들은 컴펜디움의 60개 챕터를 비평하고 저자들에게 가치 있는 피드백을 주었다.

마닐라를 넘어서

지난 세기 후반의 대규모 인구 이동은 우리의 연구와 "선교 분야"에 근본적으로 도전해 왔다. 한때 교회가 집중하여 '저 너머 지역'으로 나갔던 곳에서는 현재 기독교 선교사들이 '주변 선교'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한다. GDN은 2015년 개정된 GDF 프레젠테이션을 수집하여, 옥스포드 미션 연구 센터(영국 옥스포드)의 Regnum Books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Disclosed and Collected: A Global Compendium of Diaspora Missiology (Sadiri J)를 출판했다. 티라와 T.야마모리 편집장. 2016). 이 저자들의 책에서는 선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 성경학자, 선교학자들, 이주 전략가들과 실천가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사명의 발전을 분석하여 그들의 출생지 밖에 살고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GDN의 목표 중 하나는 전 세계 주요 복음주의 신학 훈련 기관 대다수가 디아스포라(diaspora) 선교학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GDN은 신학교육기관의 디아스포라 연구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을 쓰는 다양한 세미나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연구와 저술은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성장 기구에 주요한 공헌이 될 것이다. GDN과 GDF 201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lobal Diaspora Network 웹사이트 <http://www.global-diaspor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선교적 기회다. 로잔운동과 GDN은 세계교회가 디아스포라 사명을 수용하고,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이주민 선교 사역을 목회와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선교

연구 보고서

서론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디아스포라를 위한 사역과 디아스포라선 교의 적용을 위한 전략을 세우려는 이들을 위해 신학적인 기반을 세우는 데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디아스포라’에 대한 성경적 연구와 관련핵심용어

둘째, ‘디아스포라 선교’의 신학적 기초

셋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개요(성경적 역사)

넷째, 대위임령과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디아스포라’들에 의한 선교

다섯째, ‘디아스포라’의 선교학적 의미

여섯째, 결론

본 보고서에서 디아스포라(단수)혹은 디아스포라들(복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단수의 의미로는 고향을 떠나 이동하는(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이민)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e.g. 필리핀 디아스포라, 브라질 디아스포라). 복수의 의미로는 고향을 떠나 이동하는(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이민) 모든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통칭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성경적 연구와 관련핵심용어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는 성경 용어이고 구속사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는 70인역 성경(LXX)에서 διασπορ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들이 영어 성경에서는 ‘제거된’, ‘내몰린’, ‘흩어진’, ‘추방된’, ‘망명된’, ‘분산된’, ‘따돌림 당한’, ‘망명자’, ‘보존된’, ‘(흩어지고) 남은’, 심지어는 ‘컵에 질린’ 등으로 번역된다. 신약에서 ‘디아스포라’(요 7:35; 약 1:1; 뱀전 1:1)라는 명사와 ‘디아스페이로’(διασπείρω. 행 8:1,4, 11:19)라는 동사는 영어로 ‘분산’, ‘분산되어짐’, ‘흩어짐’이라고 번역되었다.²ⁱⁱ

‘디아스포라 선교’의 신학적 기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즉 삼위일체의 교리에 ‘디아스포라’의 신학적 기반을 둔다. 역사상 그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인간의 모든 지리적 이동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지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열방과(창 25:23; 시 86:9~10) 언어와 문화(창 11:1,6,7,9)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와 시간을 결 정하셨다. 사도행전 17:26~29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실 뿐 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자 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디아스포라들을 설계하고, 지휘하고, 고용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흩어진 모든 사람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있어야 할 장소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부터 떠나 보내셔서(빌 2:4~12) 인간의 형상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요 1:1~14).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을 때, 생 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의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끌려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에서 이 집트로 가게 되었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한 사례이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마 2:15~23). 그러므로 기독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간 유일한 ‘종교’이다(요 16:28).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세상으로 보내는 자들에게 있어 엄청난 선교학적 의미가 있다(요 17:18).

성부와 성자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14:16, 16:7)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눅 24:39; 창 1:8), 죄와 정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판결하기 위해(요 16:8~11),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엡 1:14), 또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고전 12, 14장)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졌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의지와 사역은 창조부터 시작하여(창 1~2장) 완성까지(계 22장) 말씀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 개관은 ‘디아스포라’가 구속사와 본 질적으로 연관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개요(성경적 역사)

아담, 하와와 그 자손들.-이 최초의 부부로 시작해서 성경 속에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경우가 담겨있다. 창세기 1:28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 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역시 홍수 이후에 창세기 9:1에 재언급 된 자발적 인 ‘디아스포라’를 암시한다.

바벨탑의 디아스포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 11:4).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면에서 잘못되었다 : 첫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들의 오만함을 보여준다(“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 여”, “우리 이름을 내고”). 둘째, 그 계획은 사람중심이었다(“자, 우리가 ~하자”).

셋째, 그들의 흠어지지 않기 위한 죄악 되고 오만한 의지는 세상에 널리 퍼져 땅을 정 복하라는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섞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흠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양쪽 다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말살하는 대신,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셔서(창 11:5~9)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다(창 12:1~3). 창세기 11:7~8에 기록된 대로, 언어의 혼란과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주는 더 큰 죄악을 막기 위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 11:6). 사람들을 흠으시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다(창 1:28, 9:1). 우리는 항상 원심적이기 보다는 구심적이기 원하는 ‘바벨탑 강박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인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주시키셨다. 몇몇 ‘디아스포라들’은 사람의 죄악된 행동으로 생겨났다(창 4:12~16 가인의 예). 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종들을 열방을 위한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시나(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저주받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셨다(가나안 사람들, 창 9:25 비교). 아브라함은 또 한 ‘히브리인’(잠시 머무는 사람)이라고 불렸다(창 14:13).³ⁱⁱⁱ

또 다른 경우의 디아스포라는 주님이 상황을 이용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주시를 때 생겨난다. 즉, 가나안의 아브라함(창 12:1~6)^{4iv},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시 80:1, 81:5, 105:17)이 그 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거 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 을 달성하시거나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를 예측하거나 조종할 수 없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이고 인간의 운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신명기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신 26:5)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은 일종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야곱과 그의 방랑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국인, 이방인, 방랑자로서의 그 근원(한 국가의 서사시를 시작하기에는 매우 드문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성경 속에는 ‘디아스포라’라는 맥락의 삶을 살고, 변화를 만들었던 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예화로 가득 차 있다. 그들 모두는 ^{5v}(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 다니엘 등)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멀리서나마 그 약속을 바라고 확신했으며, 포용하고 자신들이 이방인(ξένο)인 것과, “일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땅 위의 순례자 (παρεπίδημοζ, 히 11:13)인 것을 고백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시리아의 어린 히브리인 여종을 기억해보라. 열왕기하 5:1~4의 말씀을 고려해 보자. 어떤 이가 예레미야, 다니엘 또 주님께서 디아스포라로 사용하셨던 다른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시대의 자발적인 디아스포라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διασποράν)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요 7:35).

예수님시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을 유대교로 전도하기 위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기도 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 23:15). 요한복음 7:35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해외로 가신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문은 자발적인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에 무엇이 이 같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였는가? 해외로 가야한다는 요구와 헬라인을 가르쳐야 한 다는 목적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디아스포라’라 볼 수 있는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1세기 때 알려진 세계에 널리 퍼져있었다는 것과, 이것이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 하러 왔다는 것을 유대인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매우 좋은 증거가 있다.^{6vi}

성경과 디아스포라

성경의 많은 책들은 그 영감을 얻은 저자들이 디아스포라의 신분이었을 때 쓰여 졌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동 중에, 또 그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법전(法典)을 썼다. 바빌론의 다니엘과 같은 출애굽 이후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책들을 디아스포라로 사는 동안 기록했다. 신약의 대부분의 책은(예를 들면, 바울서신)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생활하고, 사역했던 주의 종들에 의해 예루살렘 밖에서 기록되었다.

신약 중 두 권은 디아스포라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쓴 글이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썼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ἐν τῇ διασπορᾷ)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그들이 이미 흩어져있는 상태

에서 복음을 들었을 것일까? 아니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도록 압력이 가해져서 흩어진 것일까? 비록 전치사 ἐν(“~한”으로 번역된다)가 ‘자발적 디아스포라’와 ‘비자발적 디아스포라’를 둘 다 뜻하는 단어이지만, 아마도 전자(前者)였을 것이다.^{7vii}

베드로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 신약에는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두 서신,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παρεπιδήμοις διασποράς)”(벧전 1:1).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디아스포라로 생활하는 자들을 수식하기 위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다: 첫째, παρεπίδημος(순례자). “외국에서 와서 현지인들 곁에서 생활하는 사람”. 둘째, πάροικος. “이방인, 외국인, 시민권이 없이 사는 사람”.^{8viii}

천지창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달성하신 구속의 목적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왔다. 교회 부흥역사의 어제(과거), 오늘(현재)은 물론, 내일(미래)에도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모든 곳으로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적 현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9ix}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시 22:28).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시 66:7).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시 103:19).

이른바 ‘대위임령’ 또는 ‘선교대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어떤 목적을 갖고 세계로 보내진(마 28:19~20; 막

16:15,19~20; 눅 24:45~47; 창 1:8), 또 다른 직접적인 이유(정 치적, 경제적, 교육적, 윤리적 등)를 위해 흩어진(사 49:6; 단 12:2) 사람들의 양상을 띤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장소와 시간을 다스리시는 것이다(창 17:26~27). 창세기에 나 온 초대교회의 확장. 예수님의 재림 때 온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임. 그리고 천국에서의 성대한 찬양의 축하행사(계 5:8~10을 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신자들의 '제사장직'으로서의 사역과 중요한 역할을 예견하고 있다(벧전 2:9~10).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의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마 24:14, 28:17~20) 그 주 권적인 다스림 아래 하나님에 의해 명해지고 축복받은 선교적인 수단(창 1:28, 9:1, 12:3, 28:14)이다.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아래 인용된 구절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행 17:26~28).

하나님께서 열방을 창조하시고(창 25:23; 시 86:9~10), 언어와 문화를 허락하시며(창 11:1, 6, 7, 9), 우리가 거주하는(창 17:26~29) 장소와 시간, 즉 공간적 및 시간적 차원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을 단순히 대안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선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하나님 자신의 영광
-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화
-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

인류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안에 있는 것이다. '모든 신자의 사제화(司祭化)' 교리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디아스포라'와 '디아스포라들'에 이르기까지가 하나님의 전 세계적 계획과 선교의 완성인 것이다. 모든 국가가 디아스포라들 혹은 국외 거주자들(단기, 장기, 또는 이미 시민권을 얻은 이들)의 존재, 참여, 그리고 능력(그 것이 좋은 것이던 나쁜 것이던)을 믿는다.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북미인, 히스패닉계, 아프리카인, 아랍인, 한국인, 중국인, 브라질인, 필리핀인 등이 존재한다.^{10x}

이러한 이동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에녹 완 박사가 분석한 대로, 사람들은 자발 적으로(교육, 자유, 더 나은 경제사정 등) 이동하고 비자발적으로(난민, 인신매매 등) 이동 된다. 이들은 개인적이거나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동한다. 표 1-1은 왜 국제적인 이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지를 보여준다.^{11xi}

표 1-1. 사람들을 이동하는 밀어냄과 당김의 요소

밀어냄	당김
세계빈곤의 확장과 이주희망국가의 부유함과 건강에 대한 매료	더 나은 지역의 언론 노출
정치적 핍박과 권력남용 eg. 여성과 아동 착취	정치적 자유와 인간 평등 eg. 남녀 평등과 좋은 기회
자연재해	삶의 질
인재: 사고, 공해, 사회적 소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안정, 기회, "아메리칸 드림"
남겨진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eg. 가족 또는 공동체	지인들의 성공 사례나 초청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왜 그들은 이동하고 어디로 향하는가? 두 가지 작용(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세 가지의 선택(더한... 덜한... 최소의), 그리고 다섯 가지의 방향(밖으로, 안으로, 회귀, 계속된, 머무르는)에 근거하여, 이 표는 여러 종류의 이주를 나열한 것이다"(표 1-2를 보라).

표 1-2. 작용 요소와 이주의 선택, 그리고 다섯 가지 방향 ^{12xii}

이주자 방향	자발적 더 많은 선택의 폭 주도적인 이주자	비자발적 적은 선택의 폭 ← —→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반응적인 이주자
밖으로 향하는	·여행객 ·방문객 ·학생 ·임시거주 전문인력 ·출장객	·제적/ 노동 이주자 ·지방/도시 이주자 ·망명희망자 ·주하도록 유도된 자	·난민 ·추방자 ·내부적 추방자 ·개발에 의한 이주 ·재해에 의한 이주
안으로 향하는	·초기 신규이주자 ·가족재회/가족구성	·명을 희망하는 방문객, ·학생 또는 여행객	·망명희망자 ·난민희망자
귀환하는	·환하는 이주자/ 난민 ·자발적 송환자 ·자발적 귀환자 ·장기해외거주 ·송환자	·환하는 이주자/ 난민 ·강요에 의한 ·도와 선택에 의한	·강제추방 이주자 ·송환될 난민 ·강제귀환 ·기해외거주 송환자
계속되는	·재정착 ·전략적 분산	·난민의 제 3 국에서의 ·재정착	·흩어짐 ·강제 해산
머무르는	·선택에 의한 거주 ·가정분산전략	·난처에 갇혀있는 사람들	·필요에 의한 거주 ·억류

디아스포라들과 대위임령

복음적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의 모든 논점(전시적, 역사적, 전략적, 경험적 등)이 하나님의 말씀(성경)의 해석적, 신학적, 그리고 교회학적인 검토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이 디아스포라 현상의 현실적 영향과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13xiii}

대위임령, 즉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은 단순히 추측되거나 당 연시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명쾌하고 지속적으로 상기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 의 궁극적인 의문점들 중 하나는 이것이다. “우리는 열방으로 제자를 삼고 있는가?” 이것 이 선교학에 대한 맥가브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선교학(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의 목적은 대 위임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좋은 일지는

모르겠지만 선교학은 아니다.”^{14xiv}

오늘날 디아스포라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글로벌화, 도시화, 노동력의 지리 적 이동과 이민(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과 기독교의 중력(북쪽에서 남쪽으로)^{15xv} 같은 흐름에 의해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21세기의 기독교선교를 사회문화적인 변화(글로벌화, 도시화, 지리적 이동)에 따 라 디아스포라를 향한,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복음적인 디아스포라와 현지인들에게 좋은 기회인가! 그 누구도 디아스포라 가 이 시대의 표적임을 알아보기 위해 선지자가 되거나 박사학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리' 을 넓힐 필요가 있다.

16로서의 활발한 디아스포라 전략을 포용하기 위해 전통적인 관념 ^{16xvi, 17xvii}

표 1-3. '전통적 선교'와 '이주자 선교'의 비교 18xviii

영역	전통적	이주자
관점	·지리적으로 나눔 : 해외선교 ↔ 지역, 도시 ↔ 지방 ·지정학적 경계 : 주/국가 ↔ 주/국가 ·학문적 구분 : e.g. 선교이론/ 선교전략	·비공간적 ·경계가 없음, 초국가적, 세계적 ·새로운 접근 : 통합적이고 학제간적임
관념	·구약 : 선교=이방인-개종자-다가움 ·신약 : 선교= 대위임령-떠남 ·현대선교 : E-1, E-2, E-3 또는 M-1, M-2, M-3 등	·공간적,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따르는 21세기의 새로운 현실 ·이동하는 대상과 함께 이동하기
사역양식	·구약 : 여호와께로 이방인을 부름 (다가움) ·신약 :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보내심, 사도행전에서 by H.S.(떠남) ·현대선교 : 선교사와 돈을 보내는 것과 선교의 자금자족	·기독교선교의 새로운 방법 : 우리 문 앞에 와있는 선교 ·국경이 없는 선교 ·하늘나라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역 ·국경없는 교회 ^{19xix} , 유동적 교회 ^{20xx} , 바다위의 교회 ^{21xxi}
사역방식	·문화-언어적 장벽 : E-1, E-2 등. 따라서 여러종류M-1,M-2등. ·'인류그룹' 정체성 ·복음적 범위 :전도↔미전도 ·경쟁심, 자금자족	·국경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 ·기동성 있는, 유동적인 ·복합적인 정체성과 민족성 ·미전도 종족이 없음 ·동역 ^{22xxii} , 네트워크 구축, 동반상승효과

디아스포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는 디아스포라 그룹을 사역함으로써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길이자 방법 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민 연구와 선교학적 연구의 통합은 선교의 새로운 전략인 실제적인 '디아스포라 선교학'으로 귀결된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디아스포라를 통해, 디아스포라에 의해 열방을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다.^{23xxiii}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세계선교를 위해 동기가 부여되고 동원될 수 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예, 이주자들에 의해 행해진 선교로써 그들의 본국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그들의 동족을 복음화 시키는 것)와 '이주자를 뛰어넘는 선교' (디아스포라에 의한 타문화 선교로써, 거주 국가 사회나 또는 그 안에 있는 다른 민족 그룹들을 복음화 시키는 것)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여 선교 역사상 가장 전략적인 선교자원 중 하나였다.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

최근까지 10/40창에서 온 미전도 종족들로 추정된 많은 이들이 이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이주민의 세계적 흐름으로 인하여 접근이 용이해졌다. 받아들이는 나라의(예, 서부권의 선진공업국가들)의 성도들은 '우리의 문밖 선교'를 실행할 수 있다(표 1-3을 보라). 이는 지리학적,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지 않은 채 이웃에 있는 새로운 방문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을 지리학적으로 움직여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때, 교회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예, 디아스포라 들을 향한 선교).

변화기(예, 이주자와 이민자들은 그들의 조국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전함에서 벗어나게 된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수용적이어서 복음 또한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을 영적으로 움직이실 때, 교회는 이 황금기회를 부여잡고, 부지런하고도 신실하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이 주자를 향한 선교'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들 중 많은 이들은(예, 추방된 사람들과 인신매매의 희생자들)는 기독교인들의 환대와 구제가 필요하다. 대계명의 실천을 대위임령에 결합시키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에 있어 적절하고도 효과적이다.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조국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그들의 동족을 복음화 시키는 선교와 관련이 있다.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과 초기교회의 리더들은 모두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생활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특별히 디아스포라의 환경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였다. 수세기를 통한 교회 역사는 이 이론을 확인시켜준다.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 청교도들과 다른 복음주의적 그룹들은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동안 굉장한 기여를 했다. 이에 예를 들어, 미국이 이론 성과(교육적, 종교적, 경제적, 윤리적 영역에서)와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17세기 청교도 디아스포라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회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데 실패한 기독교 교단과 단체들은 21세기 의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중대한 발전을 놓칠 것이다. 서부에서 나머지 세계로 보내는 선교의 전통적 방식에서 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조국을 떠난 이들이 다시 선교사로 돌아올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창조적으로 이 '자립형 디아스포라 선교사들' 중 많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역 선교).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실제로 오늘날 세계의 모든 그룹의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디아스포라환경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선교자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자급자족 집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FIN(필리핀 국제 네트워크) 운동이 있다.^{24xxiv}

디아스포라를 넘어선 선교

선교의 주요한 전략적 관심 중의 하나는 거주사회의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구성원들 가운데 머무는 다른 민족그룹들을 복음화 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환경 안에서 자립구조의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원할 수 있는 장소, 역할, 그리고 필요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 이주자를 넘어선 선교).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적 적응이 된 뒤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다리이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은 거주 사회의 기존 교회구성원들과 새로운 모임을 개척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즉각적이고 적절한 성경적, 교차문화적인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위해 양육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엡 4:11-14). 그리하여 양육과 교육은 복음적인 디아스포라들이 거주 사회와,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민족그룹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나라든 돕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주자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17세기 '순례자들' 조차도 개종, 교육, 그리고 시 민권 사이의 상호작용 및 새로운 세계 속의 국가의 경건한 삶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 발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했던 것이다.

디아스포라 그룹의 배경 안에서 지역교회와 교단 그룹의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대위임령 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거주 국가의 성도와 교단의 부흥과 활성화를 이끄는 대단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 디아스포라의 세계적인 인구학적 현상은 서구 선진 사회의 복음주의적 교회 및 교단과 디아스포라의 다른 복음주의 그룹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가지므로 새로운 기회와 대단한 잠재력을 생성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상황 가운데 있는 이방민족의 교회리더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가 있다. 복음주의적 신학 교육기관들(성경학교, 대학, 신학교)은 또한 이런 디아스포라 그룹들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이들은 기독교교육과 사역적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거주국 내 교단들은 이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신학기관들은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이미 포르투갈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시도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도자(정치계, 외교 계, 학계, 교단, 과학, 비즈니스 등)의 자리에 있는 복음적 '디아스포라들'은 그들과 거주국 의 구성원들과 다른 디아스포라 그룹들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며 관계를 발전 시켜가 는데 그들의 역할과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만 한다.

디아스포라 교회구성원들은 각자가 그들의 선교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 되고 능력이 주어질 때 대위임령을 위해 동원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 단체의 구성원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거주 사회의 문화에 적응할 때, 문화를 초월하여 그들은 거주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디아스포라 그룹으로 다가가는 소위, 그들을 넘어서는 사역을 위해 자연스러운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

디아스포라는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의미를 가진 글로벌 현상이다. 디아스포라의 이해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된 주도권으로 볼 수 있다. 겉으로는 혼란스럽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디아스포라 현상 뒤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와 인간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역사 둘 다 디아스포라의 구원론적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

교회는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동하게 하신 이래, 지리적으로는 그들의 조국으로부터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고 영적으로는 복음에 보다 수용적인 자세로 만드신 후,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는 복음사역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어왔다. 디아스포라그룹들은 세계선교를 위해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그들의 조국이나 또 다른 곳에 있는 이주자와 그들의 동족까지)와 디아스포라를 넘어선 선교(예, 문화를 넘어서 거주 사회를 향해 그리고 그들의 지리적인 환경 안에 있는 다른 민족 그룹들을 향해) 둘 다 동기부여 되고 동원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를 향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무관심한 복음적 모임, 교단이나 기관은 나중에 이를 후회할 상황이 올 것이다. 디아스포라를 통한, 그리고 넘어선 선교의 '비행기'는 움직이고 있고 곧 이륙할 예정이다. 물론 난기류(신학적, 전략적, 그리고 윤리적인)가 있겠지만 그 비행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화'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비롯된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활동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의 시민권 자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써 기독교회의 배경 안에서(국내와 해외 둘 다) 형제애와 존엄을 굳건하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호 존중과 열려짐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숙해져 감에 따라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명확히 선포할 때, 우리의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경건한 삶, 사랑과 빛 된 삶의 변혁을 통해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다른 기독교인 사상가들과 함께 디아스포라에 대해 대화하며 우리의 신학적인 생각을 성숙 시킬 때이다. 디아스포라 상황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전통과 선교 적 순례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서울선언

2009년 11월 11~14일 대한민국 서울에 서 열린 로잔 디아스포라 교육자 회담이 있었다. 이에 2009년 5월 4~8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로잔 디아스포라 전략회담과 연계하여 선교지도자, 동원가, 교육자, 훈련자, 그리고 디아스포라 사역 에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소집 하였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인정 한다

- 첫째, 지구상의 사람들을 모으고 흠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주권이 하 나님의 사역의 핵심이며 세상을 구원 하려는 목적임을 인정 한다.
- 둘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일하시는 가운데 주된 수단임을 인정 한다. 또한 우리는 각 사람과 문화의 독특함, 존엄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존중하며, 교회가 더 넓은 사회와 협력함을 인정 한다.
- 셋째, '디아스포라 선교학'이 선교학에 있어 성경적, 전략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출생한 지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 역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선교학적 틀"로 정의됨을 인정 한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선언 한다.

- 첫째, 우리의 선교적 관심과 사역을 로 잔 서약과 마닐라 선언문에서 공표된 바와 같이 로잔 세계선교 운동의 사명 과 비전에 일치시켜 협력할 것을 선언 한다
- 둘째, 우리가 각각 다른 배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 리의 이해와 적용은 반드시 성경(신학) 적 기반에 따를 것을 선언 한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호소한다

- 첫째, 지역교회와 교회운동, 선교단체, 학교 그리고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활용하며, 또 지원하고, 동역 하며, 힘을 실어줌으로써 디아스포라 분야가 추수할 들판으로 무르익게 되도록 호소한다.
- 둘째, 교회와 선교지도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의 현실에 드러난 세계선교의 기회를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도록 호소한다.
- 셋째, 선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이 재정 지원과 개인 훈련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훈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발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호소한다.
- 넷째, 추수하시는 주님께 추수할 일꾼 을 보내주시고,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전 세계적인 중보를 통해, 온 교회가 모든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도록 호소한다.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

2009 디아스포라 교육회담

(2009년 11월 11~14일

대한민국 서울 핫불 트리니티 신학교)

디아스포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이행할수있는다음단계

서론

20세기와 21세기의 부인할 수 없는 현 실 중 하나는 디아스포라들(이동하는 사람들)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주자 현상 의 규모와 범위는 최근에 단계적으로 확 대되고 있고 오늘날 국제적인 인구의 3% 가 그들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국 밖에서 살며 일한다고 한다. 심한 위기를 겪거나 경제적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 중의 일부이다.

다양한 출신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 방으로 이동하고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 고 있으며, 계획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세상은 빠르게 ‘국경 없는 세계’^{25xxv}가 되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여 그들이 하나님 을 찾고 알게 함을 믿는다. 디아스포라들 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 긴급한 필요성과 더불어 놀라 운 기회를 준다. 이것은 분명히 현 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념인 것이다.

이에 뒤따르는 간단하고 분명한 전략은 이 책자에 포함된 ‘디아스포라 신학’을 뼈대로 한 건고한 성경적, 신학적인 기반에 기초한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단 체가 이 7가지 단계의 전략을 적용한다면, 디아스포라 사역의 시작은 현실이 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역 모임, 선교단체, 학원과 경제계를 향한 우리의 간청은 추수를 위해 기회가 무르익은 디 아스포라의 들판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하 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 일꾼들에게 힘 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STEP#1 -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1. 디아스포라 현상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현실이다.
2. 디아스포라 현상의 범위는 거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 가갈 기회이다.
3. 성경은 디아스포라 전략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임을 보여 준다.
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명은 디아스포라의 복음화를 포함한다.
5. 각 디아스포라 그룹은 가능한 선교현장과 잠재적인 선교 파워를 제공한다.
6. 이동 중인 사람들은 보다 변화에 열려 있고 자주 복음에 열려있다.
7. 이동 중인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한 첫 째 되는 기관은 현존하는 지역적, 그리 고 세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다.
8. 복음은 어떤 문화와 배경과도 맞지만 교회는 각각의 디아스포라 그룹을 위 해 그것을 상황화(contextualize) 해야 한다.
9. 이동 중인 사람들을 위한 복음화는 집 중된 관심, 시급한 열정과 전략적이고 도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10. 복음을 가지고 개인이나 그룹에 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STEP #2 -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

태도는 삶, 관계와 사역에서 중요하고도 능력이 있다. 뒤따르는 7가지 질문은 당 신과 당신의 모임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평가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1. 당신은 다른 문화, 종족, 민족 그룹들을 향해 생색내는 듯한 태도를 가졌는가?
2. 당신은 급진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자기 민족 중심적인가?
3. 다른 문화, 종족과 민족 그룹에서 온 사람들의 유입이 그들을 전도함에 있어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아니면 무력 화시키는가?
4. 당신의 중심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한 선한 부담감이 있는가?(레 19:33~34; 신 10:19).

5. 당신은 문화적 다양성과 모든 문화, 종족, 민족 그룹들을 향한 사역을 꺼안을 준비가 되었는가?
6.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핵심적인 영적 원칙으로써 사랑의 환대를 베풀어본 적이 있는가?(마 25:35; 롬 12:13; 벰전 4:9; 히 13:2).
7. 당신은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의 활동적인 일원인가?(행 2:42~47; 벰전 1:22, 3:8, 4:8-11).

STEP#3-당신의 이웃을 자세히 살펴보라

디아스포라들은 점점 여러 형태의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종종 사람들은 매일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 당신의 일터와 지역과 여가세계에 서 당신의 이웃이 진짜 누구인지를 진단 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

1. 당신 이웃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누구인가?
2. 그들의 출생지는 어디인가?
3. 각 디아스포라그룹의 크기는 어떠한가?
4. 그들은 왜 오게 되었는가? 또는 그들을 여기로 오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
5. 그 디아스포라들의 모국어는 무엇인가?
6. 그들은 어떠한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가?
7. 그들의 종교적 취향은 무엇인가?
8. 그들은 예배장소를 세웠는가?
9. 그들 가운데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10. 그들의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11. 그들의 직업은 어떠한가?
12. 그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 정도는 어떠한가?
13. 그들이 느끼는 욕구와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4.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욕구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15. 그들에게 손을 뻗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구인가?

STEP#4 - 총체적 사역을 시작하라

1. 모든 사람들을 상호존중, 위엄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라.
2. 공동 관심사. 즉, 청소년 문제, 약물남용, 주택문제, 비고용, 인종주의 등을 토대로 모든 배경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라.
3. 다양한 디아스포라 그룹들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4. 다른 교회와 기독교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하여 전문지식, 자료, 인력, 기도와 훈련을 위한 자원들을 공유하라.
5. 의도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적 진리와 실천이 발휘되지 못하는 곳에 서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라.
6. 대단한 창조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사역에 접근하라.
7. 기존의 존재하는 사역의 기초 위에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사역을 확장시켜라.
8. 난민, 인신매매, 힘없는 사람들 등 비 정의의 희생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법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데 힘써라.
9. 물질적,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도움, 그리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상담을 제공하라.

STEP#5 -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준비하라

1. 지역교회들로 하여금 그곳이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착륙지이고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한 발사대임을 깨닫도록 도우라.
2. 믿는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사역의 범위와 이용 가능한 방법들을 알도록 하라.
3. 믿는 자들이 이 사역의 도전과 절차에 대한 정기적이고도 정직한 정보를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하라.
4. 믿는 자들은 정기적으로 영적인 성장 과 생명력을 경험함을 확신시켜주라.

5.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중보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팀을 만들라.
6. 믿는 자들에게 타문화 적응능력을 증가시키는 훈련을 제공하라.
7. 믿는 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간결하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8. 믿는 자들의 타문화를 환대하는 기술을 높여라.
9.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예민함과 상황화된 복음 활동, 그리고 제자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10. 효과적인 전도와 제자도를 위해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대상에 적절한 언어로 된 구체적인 자료 및 자원을 공급하라.
11. 전도와 양육을 위해 인터넷상으로 제공되는 주요 언어로 된 자료 및 자원을 제공하라.
12.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위한 접촉점을 이용하라.

STEP #6 - 진정한 관계를 만들도록 격려하라

1. 디아스포라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그들을 사적인 관계로 함께하라.
2. 모험을 각오하며 진정으로 문화 사이를 오가는 관계를 만들어라.
3. 그들이 느끼고 있고 당면한 욕구를 위해 보살필 수 있는 따뜻한 환대를 제공하라.
4. 디아스포라들을 알고 그들 고유의 문화적 맥락을 알라.
5. 그들의 모국어로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신도를 찾아라.
6. 당신의 신앙을 내보이되 당신의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말아라.
7.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8. 기독교가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지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

STEP#7 -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에게 선교를 위해 권한을 부여해라

1.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 이점, 기회를 주라.
2. 선교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교의 환경을 만들라.
3. 지역적으로 대위임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관계를 계획하라.

4. 디아스포라 리더들을 확인해보고 훈련시키라.
5. 대표되는 모국어로 신학적 훈련을 제 공하는 선교기관과 협력하라.
6.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통신교육과 전자수단을 사용하라.
7. 모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8. 선교 참여에 적극적인 현지 교회들과의 동역을 깊게 하라.
9. 사역의 효과를 위해 집중된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라.
10. 가능하다면 국가적, 종교적이거나 국제적인 크리스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하라.

결론

이 7단계의 전략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동 기부여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시도해보면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쟁취할 만한 존재들이다!

함께 기여한 저자들의 소개

메데이로스 엘리아스 (Medeiros, Elias) 엘리아스 메데이로스 박사는 1975년 1월부터 브라질의 장로교회의 안수받은 사역자(ordained minister)이고 미국 미시시피 잭슨의 개혁신학교(RTS)에서 선교의 Harriet Barbour 교수이다. 리폼드 신학교에 오기 앞서 1993년에, 그는 선교사로써 아마존 정글에서 일하였고 브라질 북동부에서 도시교회 개척자로 일하였다. 또 그는 브라질의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남브라질의 복음주의 선교센터에서 학장이었다. 그는 포크제리나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세 명의 결혼한 자녀와 여섯 명의 손자가 있다. 메데이로스 박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든 멤버를 통해 세계복음화에 깊이 헌신되어 있다.

백, 그렉 운영 (Paek, Greg Woon Young) 그렉 백 박사는 서울 인천에서 태어나 그의 고등교육을 미국에서 받았다. 그는 청소년 사역 디렉터, 기독교 교육 디렉터, 선교학 교수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써의 전문적 경험이었다. 그는 현재 미국의 Global Partners의 국제 디렉터이고 아시아 선교학회(Asian Society of Missiology)의 사무총장이다. 백 그렉 박사는 한미장로교의 한 일원이자 안수 받은 사역자이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으며 결혼해 세 명의 자녀가 있다.

슈미트, 버질 (Schmidt, Vergil) 버질 슈미트 목사는 캐나다 알버타주 레드 디어에 위치한 디어 박 연합교회의 전

담임목사이다. 슈미트 목사는 텍사스, 달라스의 크레스웰 대학교 대학원을 통해 그의 사역적 훈련과 신학적 교육을 받았다(BA, MA, in Biblical Studies). 그는 캐나다의 여러 교회들의 담임목사로써 그의 재직 동안 여러 개의 새로운 이주민 모임을 탄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현재 미국 텍사스, 산 안토니오에서 교회 성장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슈미트의 비전은 산 안토니오와 그 지역을 넘어서 '새로운 이주민'들을 향해 손을 뻗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다.

토마스, 티비 (Thomas, TV) 티비 토마스 박사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캐나다 서스캐처원, 레지나에서 그의 아내 메리와 세 명의 자녀들과 함께 그의 집을 마련하였다. 그는 1984년에서 1994년까지 캐나다 성경대학교와 캐나다 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 교수로 임명되어 활동하기 전인 1974년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순회전도 자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 토마스 박사는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센터(Centre for Evangelism & World Mission)의 디렉터이다. 그는 수많은 국내 외 위원회를 섬긴다. 그는 남아시아 디아스포라 리더의 국제적 네트워크(INSADL)의 공동회장이고 캐나다인 복음전도자 협회(FOCE)의 회장이다. 그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깊은 헌신은 캠퍼스, 교회, 대학/신학교, 수련회, 세미나, 컨퍼런스, 컨설테이션에서 섬기기 위해서, 보다 확장된 국내외적 이동을 요구받고 있다.

티라, 사디리'조이' (Tira, Sadiri'Joy) 조이 티라 박사는 로잔 세계 선교위원회(LCWE)에서 디아스포라를 위한 상임위원이고 필리핀 국제 네트워크(FIN)의 국제 코디네이터이다. 그는 또한 에딘버러 2010 커미션 VII (현대 사회에서의 크리스찬 공동체)의 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그는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인과 선교사 연합회(C&MA)에서 국제 디아스포라 사역 전문가로써 섬기고 있고 캐나다 SIM의 이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전 티라 박사는 20년 이상 에드먼튼, 앨버타, 캐나다에서 초기 필리핀 연합교회의 창립원로목사로 섬겼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필리핀'(Scattered: the Filipino Global Presence; 마닐라: LifeChange, 2004)과 '21세기의 선교 실천'(Missions in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Pasadena, C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의 공동 편집자이다. 그는 전 세계 교회 특별히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구비시키고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 세계로 뻗어 가는 데 헌신되어 있다.

Wan, Enoch (완, 에녹) 에녹 완 박사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홍콩과 미국에서 교육 받았다. 그는 현재 문화인류학 연구 교수이고 미국 오렌조 플랜드에 있는 웨스턴 신학교에서 선교 학 프로그램의 박사과정 디렉터이다. 완 박사는 또한 복음적 선교학회(EMS)에서 현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는 북미와 해외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고 강의해 왔다. 완 박사는 전에 홍콩 연합 성경신학교에서 선교위원장으로 캐나다 신학대학 교에서 교차문화 연구 프로그램의 창립 이사, 그리고 리폼드 신학교에서 교차 문화 박사 연구 프로그램의 창립 이사로 섬겼다. 그는 또한 교회 개척자 목사로(뉴욕, 홍콩, 토론토), 그리고 선교사로(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섬겨왔다.

야마모리,테츠나오'테드'(Yamamori, Tetsunao 'Ted') 테드 야마모리 박사는 World Serve Ministries 의 CEO

이고 국제 기아대책 명예회장이며 로잔 국제대표 (2004-2006

를 역임했다. 그는 현재 남가주대학교의 종교와 도시문화를 위한 센터의 상임 특별연구원이고 애즈버리 신학대학교에서 총체적 선교의 부교수이다. 야마모리 박사는 그의 18년 교수사역 동안 미국, 영국, 중 국 그리고 일본의 여러 대학들에서 다양한 학문적 직위를 역임해왔다. 그는 국제 디 아 스 포 라 선교 센터 (ICDM) 의 대표 이며 위 디 국제 선교 회의 상임 고문 으로 한 국 이 주 민 선교 에 도움 을 주고 있다 . 그는 24권의 책을 쓰고 편집해 왔다. 그는 듀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DIASPORA LINKS

For resources on reaching the *People on the Move*, please visit:

Global Diaspora Network

www.global-diaspora.com

<https://www.facebook.com/globaldiaspora/>

The Lausanne Movement- Diaspora

<https://www.lausanne.org/networks/issues/diasporas>

Lausanne Catalyst for Diaspora - Dr. Sam George (2016-)

<https://www.lausanne.org/category/about/leaders/catalyst>

Lausanne Movement Documents (www.lausanne.org)

The Lausanne Covenant. The Manila Manifesto. The Cape Town Commitment.

Contact GDN (info@global-diaspora.com) for:

- Additional copies of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 of Diasporas*.
- Translations of *Scattered to Gather* booklet is available in Korean, Mandarin, Japanese, Portuguese and Spanish.
- Our newsletter *Scattered Peoples News* and Praying on the Move bulletins
- Check the website for resources and upcoming events.
- Join the network and consider donating to GDN's mission.

이 책의 한국어판 자료를 얻기 원하신다면, 위디국제선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www.withee.org)

End Notes-각주

- ⁱ 유엔 경제사회부 인구통계국 2015년 12월 2015년 4월 1면 2016년 9월 20일 <https://www.tralac.org/images/docs/8827/trends-in-international-migration-2015-factsheet-undesa-december-2015.pdf>에서 접속.
- ⁱⁱ ² 히브리어 : גּוֹלָּא - 창11:4,8; 49:7; 출 5:12; 레26:33; 렘15:7; 시59:11; 신30:4; 느1:9를 보라. 나리 산토스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에서의 흠여짐이라는 개념은 각각 다른 맥락과 용법을 가진 7개의 뿌리단어에 담겨있다. 이렇게 다양한 히브리단어는 흠여짐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정해지거나 전문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흠여진다는 개념의 여러 양상을 설명하는 7개의 뿌리단어는 다음과 같다: (1)gola(망명하다)/gala(제거하다)/galut(억류). (2)zara(찌지다, 까부르다). (3)nadah(추방하다). (4)napas(흠여지다). (5)pus(분산되다). (6)Pazar(해외로 흠여지다). (7)parad(분리하다)이다. “성경의 주요 분산 용어와 현실의 탐구”(캐나다 에드먼튼의 테일러 신학대학교에 서 2006년 11월 15~18일간 열린 세계 디아스포라 신학 회담에서 발제된 논문), p. 2; 내리 산토스 “성경에 드러난 이주자의 발생에 대한 조사와 성경에 드러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의 그 맥락”, “흠여진자들: 필리핀인의 세계적 존재”(루이스 판토자, 사디리 조이 티라, 에 녹 완 공저, 필리핀 마닐라 라이프체인지 출판사, 2004), pp. 53~65 비교.
- ⁱⁱⁱ ³ 히브리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로 W.F. Albright의 Abram, the Hebrew: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BASOR 163(1961) pp. 36~54를 보라. 또, B. J. Beitzel의 Habiru, ISBE, 2: pp. 586~90을 보라.
- ^{iv} ⁴ 아브라함은 이주자 가운데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주자를 암시한다.
- ^v ⁵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은 ἕνεκεν, πάριος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ἕνεκεν - 이방인, 어떤 집단으로부터 떨어진(서약이라는 맥락에서의 이방인; 또는 지식이 없거나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
- ^{vi} ⁶ Richard R. de Ridder. 1975, Discipling the Nations(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5), pp. 58~127. John P. Dickson, “Promoting the Gospel: ‘Mission-Commitment’ in the Churches of Paul Against its Jewish Background”(Ph.D. in Diss., Macquarie University, 2001)을 비교해 보라.
- ^{vii} ⁷ Jason Lim-The Trials of the Christians as Elect Resident Aliens and Visiting Strangers in 1 Peter, 박사논문, 1998. 웨필드 대학, Alliance Bible Seminary 출판, 2005.
- ^{viii} ⁸ 눅 24:18에 사용된 단어-“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 ^{ix} ⁹ 모든 신자들의 사제화 교리와 디아스포라들이 선교학적인 도구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신자는 디아스포라로서의 사역(장소, 은 사, 이행해야 할 의무)이 있다.
- ^x ¹⁰ 디아스포라 연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Melvin 과 Carol R. Ember와 Ian Skoggard의 두 권 한 세트인 Encyclopedia of Diasporas: Immigrant and Refugee Cultures around the World를 보라. 또 Jana Evans와 Anita Mannur의 Theorizing Diaspora: A Reader 그리고 검증된 분기별 학술지인 2007년 발행한 Diaspora, Indigenous, and Minority Education (http://www.lchc.ucsd.edu/MCA/Mail/xmcamail.2006_03.dir/0251.html)을 보라.
- ^{xi} ¹¹ 인용부호 안의 말과 표 1-1, 1-2는 Enoch Wan이 발표하였다. Enoch Wan의 Occasional Bulletin(2007년 봄호의 “Diaspora Missiology”, pp. 3~4를 보라. www.emsweb.org.
- ^{xii} ¹² Wan, op. cit., p. 4.
- ^{xiii} ¹³ 신학적 그리고 교리적인 언급들은 제 3회 ‘케이프타운 로잔대회 2010’의 모든 논의에서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의 다음 세대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Southwest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49:2(2007년 봄호): pp. 121~49에 실린 David J. Hesselgrave의 아티클, “Will We Correct the Edinburgh Error? Future Mission in Historical Perspective,”에서 비롯되었다. www.baptisttheology.org/journal.cfm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xiv} ¹⁴ Dave Hesselgrave는 고(故) Donald McGavran이 1988년 4월 7일에 보낸 사적인 편지에서 인용하고 있다. David J. Hesselgrave의 Paradigms in Conflict: 10 Key Questions in Christian Missions Today(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6), p. 316를 보라.
- ^{xv} ¹⁵ Wan 2007:3
- ^{xvi} ¹⁶ 하나님의 다리는 1954년 발간된 McGavran의 첫 저서의 제목이었다. 이 책은 교회부흥운동 역사의 참고서가 되었다. 단편판으로 Ralph D. Winter, Steven C. Hawthorne이 편집한 Donald A. McGavran의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중 “The Bridges of God”,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9), pp. 323-38를 보라.
- ^{xvii} ¹⁷ Philip Jenkins의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Oxford University Press, 2002)를 보라
- ^{xviii} ¹⁸ Wan 2007:6, 표 5와 표 6에서
- ^{xix} ¹⁹ David Lundy, Borderless Church

^{xx} 20 Peter Ward, LiquidChurch

^{xxi} 21 2002년 11월, 컨테이너선 Al Mutannabi호의 일등 주방장인 Bong 형제가 교회를 세웠다(Martin Otto의 Church on the Oceans, p. 65를 보라). 2007년 3월 29일의 사적인 대화에서 한 선원이 말하기를, “지난주에 나는 다른 배의 이등주방장을 만났는데, 그도 이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다”

^{xxii} 22 ‘동역’의 정의 : “자주적인 별개의 독립체들이 평등과 상호관계를 나누는 것.”

^{xxiii} 23 Sadiri Joy Tira & Enoch Wan, “Filipino experience in diaspora missions: a case study of Christian communities in contemporary contexts,” Commission VII: Christian Communities in Contemporary Contexts, 2009년 6월 12-13일 에딘버러.

^{xxiv} 24 FIN(Filipino International Network)운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adiri Joy B. Tira가 [Global Missiology] 2004년 10월에 쓴 특집 기사 “Filipino International Network: A Strategic Model for Filipino Diaspora Global Missions”를 보라, www.globalmissiology.org. 이는 캐나다에서 지역의 C&MA 성도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초교파적,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Sadiri Joy Tira와 Enoch Wan이 집필하고, Tira가 2009년 6월 12-13일 에딘버러에서 열린 Commission VII: Christian Communities in Contemporary Contexts에서 발표한 “The Filipino Experience in Diaspora Missions: a Case Study of Christian Communities in Contemporary Contexts”를 보라. 또 www.fin-online.org를 보라.

^{xxv} 25 ‘국경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라는 용어는 1991년에 The Borderless World (McKinsey & Company Inc)를 쓴 경제학자 Kenichi Ohmae에 의해 사용됨.